불복장 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 조명

담양 용화사, 9월 7일 담양문화회관서 학술대회

근현대 선지식 묵담 대종사
율사이자 증명법사로 '유명'
불복장 작법 관련 기록 남겨
금해-묵담-수진 법맥 조명도



묵담 스님은 한국 근현대불교사에 있어서 선 · 교 · 율을 겸비한 대종사로 평가받는다.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한 선지식으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의 중흥조 묵담성우 대종사(1896~1981, 사진)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후계자 도월 수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는 주관단체로 참여한다.

묵담 대종사는 선 · 교 · 율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했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이자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불복장 작법의 계승자로 관련 경전 필사와 잡기 등을 많이 남겼다. 실제 지난 2017년 6~8월 묵담유물관 소장 문헌자료조사를 통해 불복장 의식과 관련되는 10종의 문헌이 발견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복장 작법의 전승과 묵담 대종사의 작법 등을 조명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특히 금해 관영-묵담 성우-도월 수진으로 이어지는 불복장 작법의 법맥을 조명하는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중표(전남대)의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이승혜(리움박물관)의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남권희(경북대)의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수암 스님(금붕사)의 '묵담 대종사의 불복장 작법 중흥과 전승' △이종수(순천대)의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 이 각각 발표된다.

연구 논문 발표 이후에는 제주 선광사 주지 수열 스님의 종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은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은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전체의 문화재로, 이 같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됐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복장 작법의 전승과 묵담대종사의 작법을 다시 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 작법은 지난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됐다.

보유단체로는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가 지정됐다. (사)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존회는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061)381-2683



학교법인 이사장 법산 스님은 7월 30일 일산병원을 찾아 전 직원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숭아를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 '복숭아 · 삼계탕'으로 구성원 격려

법산 스님 의료원 찾아 '복숭아 나눔'
윤성이 총장, 근무자와 '삼계탕 소통'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한여름 더위에 지친 구성원들을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7월 30일 일산병원을 찾아 전 직원들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복숭아를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법산 스님은 "저와 동국의 인연은 반백년 정도 되며, 특히 일산병원은 터 닦을 때부터 축원한 인연"이라며 "생노병사 중 병고가 제일 고통스럽다. 최선을 다해 병고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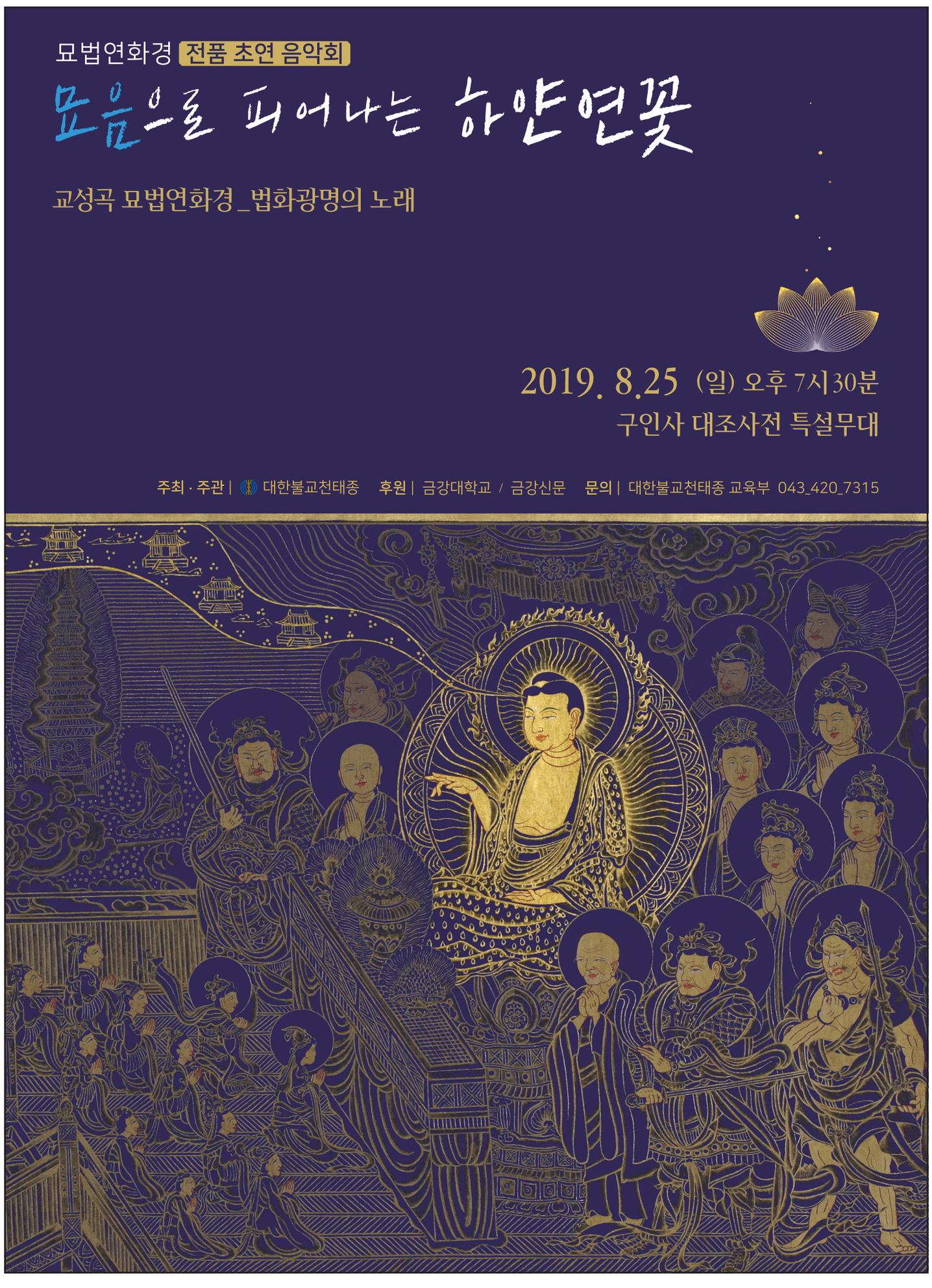
조성민 의료원장은 "이사장 스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성원들이 합심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일을 전달받은 직원들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성이 총장은 앞선 7월 22일 교내 미화 · 경비 · 주차 근무자 약 170여명에게 교내 상록원 식당에서 중복을 맞아 삼계탕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성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래 구성원들과 소통 · 화합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이 지속발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좋은 대학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미화원 대표로 참석한 변명자 씨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교 발전을 위해 저희들도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8월 14일 열려

제8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이 8월 14일 인제 만해마을 광장에서 열린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전국백일장은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한국문학의 폭을 넓히고, 일반인의 문학적인 감수성과 소양을 개발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백일장은 시와 시조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시제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시상 내역은 시 · 시조 부문 각각 △장원 1명 강원도지사상과 상금 200만원 △차상 1명 인제군수상과 상금 100만원 △차하 1명 인제군의회의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3명 인제신문사 대표상과 상금 각 10만원이다.

참가 자격은 나이 · 성별 · 지역 제한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만해축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1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만해축전 관계자는 "해마다 8 · 15광복을 맞아 독립의 참뜻을 되새기고 만해 선생의 애국정신과 문학사상을 기리고자 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3 · 1운동 100주년이라서 행사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선재어린이집 9월 2일 개원

서울 조계사 중점사업인 선재어린이집이 9월 2일 개원한다. 이를 앞두고 원아를 모집한다. 선재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만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되며 총 정원은 97명이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고, 입소예정자는 오는 20일부터 개별 통보된다.

조계사 사회국장 대륜 스님은 "요즘에 여성의 취업과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맞벌이 가정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 보육 또 건강, 영양관리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선재어린이집은 보육실부터 놀이터, 수유실, 음악실까지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조계사는 내진설계를 비롯해 친환경 자재와 곳곳에 충격방지 쿠션 등을 사용해 아이들의 안전에 특히 더 신경 썼다. 더불어 당초 정원을 140명 정도로 계획했지만, 100명 내외로 줄여 보다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계사는 '마음이 고운 어린이, 꾸밈없는 어린이, 배려하는 어린이'를 원훈으로 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답보상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8월 13일 제62차 월례강좌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답보상태에 머무른 현재, 남북관계를 진단하는 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는 오는 8월 13일 오후 7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제62차 월례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남북관계 진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민추본 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과 북이 함께 일궈낸 평화 공동사업으로,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과제"라며 "6.30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미 관계가 진전될 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으나 현재의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도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창현 소장은 민추본 정책기획위원이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윤호섭 기자